

브라질 오순절 운동의 토착화 —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

김 영 철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Kim, Young-Chul(2004), Inculturation of Pentecostalism in Brazil. *Revista Iberoamericana*, 15, 47-66.

This article is to look into transformation of the Brazilian pentecostalism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o do this project, I prefer to use the categories of inculturation of Christianity.

For better understanding of pentecostalism of Brazil, I analyze a brief historical background of Brazilian Protestantism. Although the methodology of phenomenology of religion I use is largely ahistorical, its application does not deny or reject relevant historical facts for interpretation. And I intend to develop a preliminary understanding of two contextual aspects of pentecostalism in Brazil : the cultural aspect and the religious aspect. The cultural aspect influenced brazilian to accept new movement of Christianity, and the religious aspect led brazilian to make their own indigenous or syncretistic folk Christianity.

Among these different types of Brazilian Christianity, I find the indigenous religious patterns by using the categories of contextualization of religion: (1) syncretization of pentecostalism (2) weakness of speaking in tongues (3) emphasizing worship service of women (4) belief in empowerment of pastors as God's sacred people. These indigenous patterns of Brazilian Pentecostalism must be a major cultrual reason for the church growth of Brazil.

Key Words: Brazil/ Protestant/ Pentecostalism/ Deutero-pentecostal/ Neo-pentecostal/ Baptism/ Methodism, 브라질/ 개신교/ 오순절/ 재오순절/ 신오순절/ 침례교/ 감리교

I. 들어가면서

최근 브라질의 종교인구 분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90%가 가톨릭 신도였으나, 2002년 브라질 지리 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개신교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이다. 개신교 성장은 전통적인 개신교의 성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 운동이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종교가 사회의 근본적인 행태, 종교 예식과 예법을 구성하고 동시에 이런 요소들을 조절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현실인식, 정체성과 정향성(定向性)을 끌어내어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매개체로 기능한다면, 종교인구 분포 변화는 브라질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대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개신교 성장은 사회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으로 분석된다. 사회학적인 분석은 지난 20-30년간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농촌 중심적, 전통적,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도회적, 산업적, 근대적, 민주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신교가 선택되면서 성장했다고 본다. 심리학적인 분석은 거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 적응에 실패한 아노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개신교를 선택한다고 분석한다.(Gill, 1999, 287-288) 이와 같은 분석들은 개인적 수준의 종교 선택은 설명하지만 집단적 경향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브라질의 오순절 교회¹⁾를 분석하고자 한다. 브라질에서 오순절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오순절 운동의 브라질 토착화로 파악하

1) 오순절은 기독교의 주요 축일 가운데 하나로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일요일을 말한다. 예수는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나서 승천하였다. 예수가 그 때 남긴 말 가운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에 주목한다.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종파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서만이 교의적 권위를 지니며 성서가 모든 인간 삶의 질서와 원칙을 제공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고자 한다. 또한 논문은 전통적 개신교의 역사, 오순절 운동의 발전과정과 내부의 변화²⁾등을 분석하고 결론을 대신해서 오순절의 발전과정을 토착화의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II. 브라질의 개신교 역사

개신교가 처음으로 브라질에 유입된 것은 근대 유럽의 개신교 종교개혁과 중상주의적 정책에서 나온 종교전쟁과 연관이 있다.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16세기경에 리우 데 자네이루, 네덜란드의 칼빈교도들이 17세기경에 페르남부꾸에 각각 개신교 공동체를 설립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김항섭, 2004, 235)

19세기 들어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브라질에 소개되었다. 감리교가 최초로 1836년에 브라질에 교회를 설립했다. 이어 1858년 조합교회(Congregationist)²⁾가 소개되었고, 1881년에는 미국의 전도사들을 통해 침례교가 들어왔다. 이로서 브라질 사회는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가톨릭 교회와 다른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개신교는 마치 제국주의 시대의 공식적인 종교처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으로 보급되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종교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식민지에 접목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들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종교를 활용했다.

이처럼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신교가 전세계로 확대되었지만 특정한 지역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현지에 적응하는 방법과 속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기간 브라질에 나타난 변화는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제2왕 말기를 맞이하고 있던 브라질에서는 국교제 폐지를 통해 국가와 교회를 분리해야 한다는 논쟁이 진행 중이었다. 이런 과정에서는 개신교가 국교분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둘째, 1889년 공

2) 위로부터의 지배를 부정하여 각 교회의 독립을 주장하고 국가로부터 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독립파를 구성하고 있다.

화혁명이었다. 공화혁명은 개신교가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브라질에 오순절 운동을 전파했던 미국의 선교사들도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브라질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Cavalcanti, 2001, 1) 사실 19세기 말에 국교제가 폐지되면서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면서 그 동안 흑인들이 비밀스럽게 유지해 오던 아프리카 근원의 종교들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유럽의 정령주의도 브라질로 유입되었다.

유럽의 개신교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민자들을 통해 유입되었다. 공화혁명에 앞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커피농장주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럽 이민을 받아들였다. 유럽인들은 본국에서 숭배하고 있던 영국 국교회와 루터 교회와 같은 유럽적 개신교를 가지고 왔다. 이에 따라 특정한 이민이 정착한 지역에서는 그 민족만이 지니는 독특한 종교를 유지·발전시켰다. 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과 파라나(Parana)주에 정착한 스위스인과 독일인들은 루터 교회를 만들어 유지·발전시켰는데, 이것이 브라질에 정착한 독일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종교문화로 성장했다.(Abumanssur, 2002, 77)

또한 개신교 전도사들은 파송 국가의 문화적 특성들을 브라질에 소개했다. 예를 들어, 장로교는 칼빈파의 생활철학을 브라질에 유입시켰으며, 침례교는 교회 조직이 미국의 정치형태와 유사하여 브라질에 민주적인 정치와 문화를 보급했다. 침례교는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함으로써 개인적인 특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개신교가 브라질 사회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왕정기의 정치적 안정, 높은 경제성장, 가톨릭과 국가의 관계변화, 유럽에서 유입된 이민 인구의 성장 등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개신교들은 가톨릭적 가치와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체계 때문에 종교적으로 폄박받았다.

Ⅲ. 오순절 운동의 토착화 과정

1. 전통적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은 세 단계를 구분되어 유입되고 발전되었다.(김항섭, 2004, 236) 여기서는 오순절 운동이 유입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토착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오순절 운동의 외부적인 유입보다는 브라질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911년 미국의 다니엘 베르그(Daniel Berg)와 구너 비그렌(Gunner Vingren) 목사가 브라질에 도착하면서 “회중교회”와 “하나님의 성회(Assambleias de Deus do Brasil)” 교회가 파라(Para)의 벨렝(Belem)에 세워졌다. 전통적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은사(恩賜), 신유(神癒), 축사 등의 신비한 능력을 강조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를 신성시하고 절대시한다.³⁾ 이와 같은 특성으로 북부와 북동부 지방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점차 남동부의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 빈민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Monterio, 2003, 1-2)

사실, 브라질의 오순절을 포함한 개신교의 성장은 특정한 이민 집단이 브라질에서 적응해가는 과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많은 이민들이 들어왔는데 초기 정착자들은 브라질의 특정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다. 대체적으로 이민집단은 1.5세대와 2세대가 되면 현지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움직임들을 보인다. 이런 과정은 이민들이 들어온 이후 약 30년이 지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당시 브라질의 개신교도 비슷한 경향들을 보이는데, 특히 유럽적 개신교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럽의 이민을 통해 브라질에 들어온 유럽적 개신교는 브라질에 적응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935년

3) 오순절 운동은 성령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체험신학, “신유가 속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신유 신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령의 은사는 오순절주의자들의 삶과 사역의 초기에 시작되어 은사적 특성을 지닌다. 김용식,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특성”, 오순절 신학 논단. 김진환, “오순절운동의 역사와 그 의의”, 『기독교사상』 1974년 1월호, Vol. 188, No. 17-1호 참고.

에 성경이 포르투갈어로 번역이 가능하면서 브라질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는 언어적인 문제와 문화 충격의 과정을 극복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럽적 개신교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오순절 운동은 브라질에 소개될 때부터 집단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그것은 오순절 운동이 이민 집단을 통해서 보다는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브라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브라질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종적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오순절 운동의 교회인 “하나님의 성회”를 통해 브라질에 어떻게 적응했는가를 살펴보고 전통적 오순절의 특성을 정리하고자한다. 하나님의 성회는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주였던 파라주의 벨렝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다. 이들은 선교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 사회에 대해 비교적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토양에 맞는 교회 성격과 조직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회는 북동부인들이 노예제 폐지와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북부의 중심지였던 벨렝을 선교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회 교회 역시 1940년 이전까지는 유입과 적응의 과정이 함께 나타났으며, 브라질인들이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이 증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교회 본당을 리우 데 자네이루로 옮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회가 브라질에서 가장 강력한 오순절 교회로 성장했다. 이 교회의 조직은 크게 전국 성직자 총회, 지방 중앙회, 개별 교회 목회자 3개의 계층으로 나누져 있으며 권위적 위계적 질서가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다. 예배는 강력한 감흥, 대중적인 브라질 음악을 성가로 활용하고 성경 읽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예배 형식은 신도들이 주중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들을 완화시켜주고 심리적으로 흥분시키는 효과를 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오순절 운동은 계몽주의와 방언은 중시여기지만, 가톨릭과 같은 보수적인 조직들이 갖추고 있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는 거부한다. 신학과 정신문명을 믿지 않으며 순수성을 강조하여 다른 종파와

혼합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최근 앤드류 체스넛(Andrew R. Chesnut, 1997, 15)은 벨렝 지역의 하나님의 성회 교회 연구에서 신도들이 소외된 계층이 겪게 되는 물질적인 질병에서 비롯된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브라질 사회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사회적 병폐가 나타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적 오순절 교회가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20세기 초의 전통적 오순절 운동은 유럽적 개신교와 미국에서 각각 유입되었지만, 개신교는 언어적·문화적 문제로 인해 이민공동체의 성장에 따라 교회 세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순절 운동인 하나님의 성회는 선교단체를 통해 유입되어 브라질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교회 세력이 증가되었다.

2. 재오순절 운동

1950년대와 60년대에 재오순절 운동(Deutero-pentecostal)은 전통적 오순절 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배경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점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재오순절 운동은 주로 산업 중심지인 상파울루와 리우 데 자네이루를 거점으로 남동부 지역에서 확대되었다. 이렇게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빈민들 속으로 침투했기 때문이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빈민들 속으로 침투한다고 종교적·정신적인 측면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던 빈민들이 정신적·물질적 질병을 치유받고자 했던 점들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성공했는데 재오순절 운동이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기적, 신유와 종교적 무아지경에서 나오는 방언 등 전통적인 오순절 운동이 지니고 있던 특성들을 강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재오순절 운동은 전통적 오순절 운동과는 다른 종교적 환경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까지 브라질 엘리트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대변하던 가톨릭이 혁신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종교로 거듭나고 있었다. 가톨릭은

산업화 과정에서 빈민들이 이전보다 더 소외당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신학적 재해석을 통해 사회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통신학이 개인의 영혼구원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당시의 신학의 재해석을 시도했던 해방신학자들은 현실사회를 조직적인 억압사회로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것을 주장한다.(김은수, 1998, 3) 해방신학은 상황적 해석을 통해 “빈민을 위한 종교(Religion for Poor)”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빈민층에게는 지식인의 종교로 인식되었다. 결국 가톨릭은 해방신학이라는 자성적인 혁명으로 빈민에 다가서려고 했으나 빈민의 문제를 빈민의 시각으로, 빈민이 극복하는 대안으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교육받은 자들을 위한 종교라는 인식을 남겼다. 물론 가톨릭의 해방신학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와 같이 거시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많은 성공을 거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시적 수준에서의 생활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했다.

재오순절 운동은 자본주의 사회 적응과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금연, 금주, 근면함과 정직한 행동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오순절 운동이 자구적인 노력들을 강조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확대되었다. 재오순절 운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빈민계층, 여성, 교육받지 못한 계층으로 확대되었다.(Stadtler, 2002, 20)

재오순절 운동은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자본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대안으로 기복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현세중심적인 종교가 된다. 그것은 오순절 운동의 신도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며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보상받고자 하기 때문이다.(De Matviuk, 2002, 210)

재오순절 운동은 브라질의 사회문제는 물질적인 질병이 정신적 질병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종교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개인에서 시작되는

데, 개인의 종교적인 변화와 생활태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재오순절 운동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문제 해결과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번영신학(theology of prosperity)”을 제시한다. 번영신학이란 자기개발, 질서정연과 정당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근면한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안고 있는 빈곤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번영신학은 성경 원리를 권위적으로 해석하거나 신도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원리와 개별성을 이해하면서 빈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하도록 하였다.(Clarke, 1999, 204) 이와 같이 재오순절 운동은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의 전통적인 교회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번영신학은 기존의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카를루스 로드리게스 브란다우(Carlos Rodrigues Brandão)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는 활동적인 신앙생활은 현실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희망 섞인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Cleary, 1997, 234)

이와 같은 재오순절 운동의 특성은 국제복음교회(Igreja do Evangelho Quadrangular)와 예수베델 교회(The Bethel Church of Jesus)등에 잘 나타난다. 브라질의 국제복음교회는 1946년 헤롤드 윌리엄(Harold Williams)이 볼리비아를 떠나 상파울루에 도착하여 브라질 복음화 십자군을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국제복음교회는 도시지역에서 라디오를 통해 설교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전도 사업을 전개했다. 국제 복음 교회는 개인적 문제 해결과 치유와 같은 개인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수 베델 교회는 1956년에 마노엘 지 멜루(Manoel de Mello)가 설립했다. 1950년대 브라질에 만연했던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한 브라질 교회(Igreja Brasil para Cristo)로 개칭했다. 멜루는 브라질 오순절 운동 최초로 자신이 교회를 만든 브라질인 목회자였다. 당시까지 외국인 선교사나 전도사들이 주도하고 있던 교회에 브라질인들이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순절 운동은 브라질인들에게 외국인 목회자와 성가내용 때문에 외래종교로 인식되었다. 외래종교라는 인식은 역시 브라질 빈민들에게 접근하는데 한계성을 나타내었다.

브라질인 목회자가 오순절 운동을 이끌면서 브라질화된 종교로 인식되는 변화가 발생했다. 또한 멜루의 등장은 교회의 카리스마적 지도자 출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교회 내에서 거의 독재적인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순절 운동이 가톨릭 교회와 비교해서 덜 권위적이라는 측면에서 교세를 확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브라질 교회는 멜루의 독재적인 교회 운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 느린 성장을 보였다.

재오순절 운동은 카리스마적인 브라질 목회자의 등장과 대중매체를 이용해 선교와 포교활동을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교회는 은사적 행위를 통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유지한다. 즉, 목회자가 신도들에게 안수를 통해 치유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체험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은사적 행위는 신유신학에서 시작되었는데, 오순절 운동의 종교적 치유는 물질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의 치유를 동시에 포함한다⁴⁾. 오순절 운동은 은사적 행위를 교회 내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재오순절 운동은 대중매체를 통해 은사적·치유적 행위들을 확대·광고한다. 특히,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방송함으로써 도시 변두리 지역에 거주하는 글을 읽지 못하는 하층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사실, 오순절 운동의 교회들은 도시 변두리 지역에서 성경 교육을 기초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1950년대 발전주의에 기초한 경제발전 정책으로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부터 개인적인 수준

4) 브라질에서 종교적 치유의 기능은 아프로 브라질 종교와 인디오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아프로 브라질 종교에서는 자신과 신을 일치시키는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성모(聖母)와 성부(聖父)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브라질 인디오 종교는 파제(Pajé)라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제는 종교예배를 관장하며, 구성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치료사로서의 기능을 한다. 인디오의 종교의식은 대부분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종교행위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정령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인디오 종교의 특성은 정령치유와 주술사로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또한 브라질 인디오들이 믿고 있던 신앙은 삼위이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브라질의 종교문화는 체험적·치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Motta, 1999:4; 김용재, 이광윤, 2000:417)

의 문제를 수용하고 해결하려는 기초공동체운동, 아프로 브라질 종교인 움반다(Umbanda)⁵⁾와 칸돔브레(Candomble), 재오순절 운동과 정령숭배까지 다양한 종교 운동이 나타났다. 따라서 1950년대 이후의 종교 운동은 자본주의 순응적 운동이던, 자본주의 변혁적 운동이던 소외된 사회 계층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기능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종교의 성장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적 공황상태인 아노미 현상을 극복하려는 집단적 노력에서 비롯되었다.(Gill, 1999, 287-288)

3. 신오순절 운동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순절 운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즉, 신오순절 운동(Neo-pentecostal)의 등장이다. 신오순절운동은 은사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 오순절 운동에서 성령세례 받은 증거로 중요하게 여기던 방언만을 은사적 체험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른 은사를 체험하여도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유스럽게 가정에서나 아파트에서 모여 기도회를 가짐으로 오순절 체험을 함으로 영적 갈등을 해결하며 은사운동을 하고 있다. 자신들은 신과 악마의 성령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Barretos Neto 2003, 1; Abumanssur, 2002, 80-81)

신오순절 운동은 신학적 해석과 교회 조직에서 기존의 오순절 운동과는 구분된다. 우선, 교회 조직적 특성에서 보면 신오순절 운동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의 활용을 극대화 한다. 1970년대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전자교회(the electronic church)”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교회가 급성장하던 시기였다. 이것은 경제·문화의 세계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종교가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신학적 해

5) 움반다는 1938년에 처음으로 리우의 니테로이(Niterói)에 시작되었다. 움반다는 브라질화된 아프리카 종교로 정의로 유럽적인 특성을 토대로 아프로 브라질 종교의 특성을 흡수하고 있으며 히우를 비롯한 도시지역에서 흑인과 중산층에서 수용했다.

석의 차이인데, 신오순절주의자들은 방언의 능력만이 성령세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방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제시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성령세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초기의 오순절교인들은 방언이 성령세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1차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 반면, 신오순절주의자들은 방언이 성령세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신오순절 운동은 교회나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성은 사회적으로는 억압받는 계층으로 상징화되지만, 교회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와는 다른 환경적 조건이 주어진다. 첫째, 신오순절 교회는 물질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맡김으로써 상징적인 권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교회 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억압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다. 둘째, 신오순절 교회가 항상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방어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빈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Cleary, 1997, 42)

특히, 신오순절 교회가 여성을 교회 활동 참여로 이끌어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남성을 순화시켰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남성의 순화는 브라질 사회를 나타내던 마초이즘(Machoism)과 가부장제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변화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화를 요구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오순절 교회에서 주장하는 개인과 개인주의가 페미니스트 프로젝트에서 의미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와 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신오순절 운동 내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왕국 세계 교회(Universal Church of Reign of God)”가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 하나님의 왕국 세계 교회는 에지르 마세두(Edir Macedo)⁶⁾ 교주가

6) 마세두 목사는 북동부의 알라고아스에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33명의 자식 중에서 살아남은 7명의 자식 중의 한 명으로 나은 삶을 찾아 남부로 이주했다. 이후 주재 무국에서 일하면서 중등학교와 3단계에서는 수학을 공부했다.

1977년에 설립했는데 2002년 5월 현재 무려 64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신도가 2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현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악, 불황, 실업, 가족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교회에서 성경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으며, 가톨릭, 아프로 브라질 종교와 민속에서 사용하는 관습과 형상물들이 예배 의식과 상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세계 교회는 브라질의 토속 아프로 브라질 종교인 움반다를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신·구 종교와 하레 크리슈나(Hare Krishna)⁷⁾ 교단의 동양 종교의 내용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혼합 종교들은 특정한 교리를 준수하기보다는 교주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세두 교주도 악으로부터의 자유, 정신적·육체적 질병의 치유와 교회 설립자의 번영을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혼합 종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악이란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전승되는 것이라 믿고 있으며, “잘못된” 종교를 믿거나 바이아 여인⁸⁾들이 마련한 음식을 통해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세두는 모든 경쟁과 적대감을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교회의 세력 내로 포섭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 세계 교회는 신도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정착과 적응 과정에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신도들은 교회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만, 경제적 자립과 이동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고 감정적·정신적 희생을 치러야 한다.(Clarke, 1999, 205-207)

7) 하레 크리슈나는 1966년 미국에서 새롭게 탄생한 종교로 15세기 인도의 한 종교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이들은 주님의 숭배, 무고한 자의 죽음, 완전한 헌신 등 크리슈나에 대한 박티로 현대 미국의 주류인 기독교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레 크리슈나와 참된 기독교는 그 목적과 수단이 같은 것이며, 참된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하레 크리슈나로의 개종할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신종교이다.

8) 아까라제(Acaraje)와 바따빠(Vatapa)과 같은 음식을 길거리에서 파는 칸돔브레 여신도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IV. 오순절 운동 내부의 변화

오순절 운동은 브라질 사회에 적응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사회의 종교적 인구분포나 특정 종교의 예배적·교리적 변화들은 그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게 된다. 오순절 운동은 브라질의 이민, 도시화, 산업화 등의 모더니즘적 사회의 변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변화를 동시에 담고 있다. 오순절 운동의 이중적인 성격은 브라질 사회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공존하는 사회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오순절 운동은 이단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인 오순절 운동은 성령세례의 신호인 방언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악마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초기의 오순절 운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경쟁적이고 신성운동의 한 형태였으며 미국 개신교에 기초하고 있었다.

오순절 운동은 미국적 환경에서 시작되었지만, 설교 내용은 라틴아메리카의 요구와 일치했기 때문에 폭 넓게 수용되었다. 라틴아메리카는 농촌 사회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했는데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도시이주자들은 공동체 의식과 동류의식을 느끼고 싶어 했는데, 오순절 운동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켰다.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방언은 초월적 존재와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 언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브라질의 종교문화와 일치하는 부분인데, 브라질 문화와 민중 가톨릭은 제도적인 종교 없이도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또한 오순절 운동은 각각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재오순절 교회는 후진국의 경제적 불황기인 2차 대전 이후의 기적을 설교한다. 당시 도시에는 기적을 바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에서 기적 설교는 북동부, 남부와 남동부 내륙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는 기대로 교회에 모였으며, 브라질인들은 인간, 동물과 사물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악마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엑소시즘은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Smith & Gutierrez, 2004, 1-2)

신오순절 운동은 기초공동체, 정령숭배, 아프리카 종교와 재오순절 운동에서 나타났던 “상상의 세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화와 조작의 상황은 하나님의 왕국 세계 교회의 경우에 가장 잘 나타난다. 이들은 물, 불, 빵, 흙, 소금, 열쇠, 문과 천조각과 같은 물건들을 신을 불러들이는 마술적 메커니즘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되는 언어와 상징물들은 아프로 브라질 종교의 일부분을 수용하여 예배와 관련된 행동, 예배, 엑소시즘적인 성직자와 정신적 조연자 등은 아프로브라질 종교의 신부(pai de santo)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양종교의 특성들도 받아들이고 있어 이단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오순절 운동은 모더니즘 사회에 부합하던 전통적인 개신교와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고 있다. 1980년대의 신오순절 운동은 신을 찾는 이유로 육체적 건강, 번영과 심리화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을 제안한다. 또한 종말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방언은 2차적인 것으로 제쳐두고 있다. 오순절 운동이 주장하는 종말론과 내세론은 사회적 고통과 아노미에 직면해 있는 계층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오순절 운동에서는 농촌세계의 붕괴가 하나의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언은 방언을 행한 자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학적·심리학적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Smith & Gutierrez, 2004, 5-6)

종교는 어떤 민족이나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개종한다는 의미는 행태적인 측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식과 가치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서 개종이 가지는 의미는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V. 맺음말

모든 종교운동은 어떤 특정한 사회의 역동적인 발전 과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종교는 특정 사회가 변화하면서 지니게 되는 특성을 수용하기도 하고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면서 기존의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브라질의 오순절 운동은 브라질의 사회 변화 현상들을 수용하고 또한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신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브라질 오순절의 변화와 신도들의 요구 변화의 역동적인 관계 변화가 곧 브라질 오순절의 “브라질화” 혹은 “토착화”였다.

브라질의 종교문화는 혼합종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브라질인의 75%이상이 믿고 있는 가톨릭에도 혼합종교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프로 브라질 종교를 대표하는 움반다와 칸둠블레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브라질 개신교도 역시 종교문화적 특성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오순절 운동은 유럽적 개신교와 함께 브라질 사회에 유입되었다. 유럽적 개신교들은 이민사회와 언어적 문제로 인해 독립적인 공동체에서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브라질 사회와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반면 전통적 오순절 운동은 선교를 통해 유입되면서 브라질 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적 개신교보다는 빠르게 성장했다.

재오순절 운동은 전통적인 오순절 운동이 지니고 있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회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적 현상들을 교리와 교회조직이 수용하면서 오순절 교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의 특성으로는 목회자의 브라질인화가 일반화되었으며, “빈민의 교회”, “빈민을 위한 교회”, “빈민에 의한 교회”로 변화되어 변영신학을 주장하기에 이른다.(Martins & De Pádua, 2002, 136-139)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한 신유신학을 강조하면서 브라질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노미 현상을 극복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신오순절 운동은 브라질 종교문화가 지니고 있는 혼합종교적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교가 브라질에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회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오순절 운동이 빈민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던 한계를 벗어나 중간계층과 상류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오순절 운동 성장이 사회적 필요성과 문화적 요인에 의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영철(2003), 『브라질 문화의 흑인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재, 이광윤(2000), 『포르투갈·브라질의 역사문화기행』, 부산, 부산외대 출판부.
- 김용식,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특성”, 오순절 신학 논단.
- 김은수(1998), “종교혼합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브라질의 보프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02집.
- 김진환(1974), “오순절운동의 역사와 그 의의”, 『기독교사상』 1974년 1월호, Vol. 188, No 17-1호
- 김항섭(2004), “90년대 브라질 종교 지평의 변화에 관한 고찰”, 『종교연구』, 34권.
- 최영수(2000). “브라질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4호.
- Abumanssur, Edin Sued(2002), “Crisis as Opportunity: Church Structure in Times of Global Transformations Religion within a Context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Brazil”, *Revista de Estudos da Religião*, N° 3.
- Alvarez, Miguel(2002), “The South and The Latin American Paradigm of The Pentecostal Movement”,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Vol. 5, No.1.
- Bergunder, Michael(2001), “The Pentecostal Movement and Basic Ecclesial Communities in Latin America: Sociological Theories and Theological Debates”,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 XCI No. 361.
- Cavalcanti, H. B.(2001), “O Projeto Missionário Protestante no Brasil do Século 19: Comparando a Experiência Prebiteriana e Batista”, *REVER*, No. 4.
- Chesnut, R. Andrew(1997), *Born again in Brazil: the Pentecostal boom and the pathogens of poverty*, New Brunswick, N. J.: Rutgers University Press.
- Chiquete, Daniel(2002), “Latin American Pentecostals and Western Postmodernism: Reflections on a Complex Relationship”,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 XCII No, 364.
- Clarke, Peter B.(1999), “‘Pop-Star’ Priests and the Catholic Response to the ‘Explosion’ of Evangelical Protestantism in Brazil: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Walkout’?”,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Vol. 14, No. 2.
- Cleary, Edward L. and Stewart-Gambino, Hannah W.(1997), *Power, Politics, and Pentecostals in Latin America*, Westview Press.
- Cottrell, Ed.(2000), “Growth and Development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Religious Studies* 282.
- Da Matta, Roberto(1999), “Review Essay: Religion and Modernity: Three Studies

- of Brazilian Religiosity”, *Journal of Social History*, Winter, Vol. 25, Issue 2.
- De Almeida, Vasni(2003), “O Metodismo e a Ordem Social Republicana”, *Revista de Estudos da Religião*, N° 1.
- De Azevedo, Fernando(1950), *Brazilian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ulture in Brazil*,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De Matviuk, Marcela A. Chaván(2002), “Latin American Pentecostal Growth: Culture, Orality and The Power of Testimonies”,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Vol. 5, N° 2.
- De Souza, Luiz Alberto Gomes, “Church and Society in Brazil: The Basic Elements For an Analytical Frame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Fall82/Winter83, Vol. 36, Issue 2.
- Gil, Anthony, “Government Regulation, Social Anomie and Protestant Growth in Latin America: A Cross-national Analysis”, *Rationality and Society*, Vol. 11(3), 287-316.
- Guilherme, George(2003), “Brazil's Christian Roots”, *Christianity Today*, April.
- Knebelkamp, Ari(2003), “Believing Without Belonging? In Search of New Paradigms of Church and Mission in Secularized and Postmodern Contexts: Brazilian Insights and ‘Outsights’”,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 XCII, N° 365.
- Mariz, Cecília Loreto(1994), *Coping with poverty: Pentecostals and Christian base communities in Brazil*,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Martins, Adrea Damacena & De Pádua Lucia Pedrosa(2002), “The Option for the Poor and Pentecostalism in Brazil”, *Exchange*, Vol. 31, N° 2.
- Motta, Roberto(1999), “Sociologists managing religion: the formation of Afro-Brazilian theology”, *MOST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Vol. 1, N° 2.
- Stadtler, Hulda(2002), “Conversão ao Pentecostalismo e Alterções Cognitivas e de Identidade”, *REVER*, N° 2.

인터넷 자료

Da Silva, Elizete, *Protestantismo e Nacionalismo no Brasil*, <http://www.>

uol.com.br/cultvox/revistas/orbis3/brasil.pdf(2003. 10. 22)

Monteiro, Yara Nogueira, *Pentecostalismo No* <http://www.geocities/biblia/pentecostalismo.html>(2003. 12. 02)

Barretos Neto, Francisco Araujo, *Renovação Espiritual nas Igrejas do Brasil: Uma análise do pentecostalismo brasileiro*, <http://www.editoraaleluia.com.br/art-67.htm>(2003. 12. 11)

Dennis A. Smith and B. F. Gutierrez, *In the Power of the Spirit*, <http://www.religion-online.org/>(2004. 4. 10)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E-mail: quimcarlos@daum.net

논문접수일: 2004년 6월 8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 2004년 12월 10일